

1868년,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직후 모리 가문은 하기 성에서 물러나면서 하기를 떠났습니다. 정치의 실권은 에도 막부에서 천황에게 넘겨졌고, 일본 전국의 무사 가문들은 자신들이 지닌 지위와 토지를 포기했습니다. 1878년, 하기의 주민들이 전 영주였던 모리 가문에게 경의를 표하며 성 부지에 시즈키야마 신사를 건립했습니다. 이곳에는 모리 가문의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 5인을 모시고 있습니다.